

# 1만의 힘으로 더 크게 도약하는 경기지부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누구나 희망과 기대로 부풀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새로운 일이 생겨서 행복해질 것 같은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를 보고 있자니 근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연초부터 남북간에 포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대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배신과 막장이 난무하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믿음의 정치니, 신뢰의 정치니 하는 건 허울뿐이고 정작 그 내용물은 거짓과 기만으로 꽉 차 있는 거 같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나! 작년 내내 국민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통령 하나'란 말이 결코 단순한 의미가 아니겠지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최악으로 뽑았으니 이런 상황을 맞은 거겠지요.

##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모든 일정이 4월 총선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행정권과 사법권에 방송까지 장악한 검찰 독재 권력이 의회까지 장악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윤석열의 폭정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탄핵까지 갈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진보정치, 진보진영의 입지를 확대해내야 합니다.

경기지부 조합원 1만의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경기지부 임원과 집행간부도 늘어났습니다.  
규모에 걸맞는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에 더해 경기지부는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조직의 기둥이 되는 튼튼하고 훌륭한 간부들입니다. 특히 젊고 능력 있는 새세대 간부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24년!  
경기지부 모든 사업장, 모든 조합원들이 한 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어깨 걸고 힘차게 달려나갑시다.

2024년 1월 29일,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이규선



교섭은 해를 넘겨도

# 좋은 미래 만들어가는 대찬 기운



21년 10월 설립한 **한국호야전자지회** 첫 단협 체결 이후 두 번째 교섭이 해를 넘겼다. 회사는 일본 외투기업으로 정밀 전자제품의 원판을 생산한다.

지회는 23년 지부 공동요구안 <고용안정>에 집중했으나 지금까지도 사측은 원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사측은 '25년 12월까지만' 고용안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며 이 또한 생산성 담보를 위해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게 전제다.

## 미래는 어디에?

지회 설립 직후 회사는 중국에 신공장을 준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LCD 기업인 'BOE'와 합작하는 방식이다. 23년 봄 신공장을 착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24년 안에 설비 가동을 위한 정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패싱하고 진행되는 신공장 준비.** 현재 사측은 한국호야전자의 핵심 장비 2대를 반출했다. 노후화가 그 이유였다. 빈 자리에 새로운 장비를 들여와야 하지만 사측은 이를 되팔아 중국 신공장 설비에 투자했다. 앞으로 2대의 장비가 더 반출될 예정이며 총 7대 중 4대가 빠져나가게 된다.

**한국호야전자 발전에 손 놓은 건 아닌지 의문.** 현재 회사는 대만, 한국에 공장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한국 내 수주는 한국공장이 생산하고, 대

만 내 수주는 대만공장이 생산하는 각자도생 생산-영업 방식이 본사 방침으로 정해졌다. 국내 수주만으로는 기존 매출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BOE와의 합작으로 인해 한국호야전자의 기존 고객사이자 BOE 경쟁사가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어떤 대책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 질질 끌지 말고 노사 함께 열의 쏟자는데

사측은 '임금교섭인데 지금 왜 하나, '합의서 말고 사실확인서 쓰자'며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고민도 없이, 오로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뿐이다.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사람당 평균 80시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회사 미래를 위해 조합원들이 끝까지 열의를 모았다. 사측은 매출감소를 이유로 10월부터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보자는 면담 요청에도, 고용안정 요구에도 무시로 일관하며 경영악화의 책임을 지회로 돌리고 있다.

## 돈 아닌 마음

12월, 조합원이 나눈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파업으로 생기는 손실이야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쿨하게 감수할 수 있지만, 부서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파업시간으로 인해 생기는 서로 다른 부담에 대해서는 마음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자, 돈보다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손실 분 보전을 위해 조합원 한명 한명의 마음을 부었다.



“작년의 싸움은 우리의 기초체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올해 역시 전조합원 소통이 중요하다”



23년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출근선전전 진행 중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 예열한다

교섭은 해를 넘겨도 후끈불끈 대찬 기운으로 대찬 인생 만들어가는 **대창지회**

## 어쩔 이리 뻔뻔

사측이 현재 제시한 임금안은 시급 50원 인상+일시격려금 40만원. 사측 스스로 느

끼기에도 제시안이 터무니없는지 '시급 50원이 아니라 월 12,000원 인상이라고 하자'고 했다는 후문. 물가인상율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하락이다. 게다가 대창의 호봉 임금체계에서 23년 기준 50원 인상 시, 10년차 사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라앉는다.

## 앞에선 남탓 너탓

22년 하반기부터 잔업이 없다. 1년 6개월이 넘어간다. 대외적 상황을 무시할 순 없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상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한중관계가 틀어지며 중국 수출물량이 없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보호무역 태세를 취하며 대창 수출품에 불공정거래 소송을 걸어 관세가 크게 오를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장-본부장-대표까지 30여명은 책임경영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수당을 받아간다. 회사가 어려우니 이 수당을 보류해야 한다는 게 지회 입장인데 콧방귀도 안뀐다. 그러면서 사측이 하는 말, '이렇게 어려운데 노조는 돈만 달라고 한다'.

## 수십년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사측의 맨손교섭이 계속되던 23년 11월, 정문 밖에서 끈에 천을 묶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에 사측은 정년 앞둔 형님들 잔업을 통제했고 조합원 모두가

끓어올랐다. 수십 년 넘게 헌신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날 바로 파업을 선포하고 현장에 소지천 만국기를 걸었다. 김관운 지회장은 말한다. “30년, 40년 헌신했던 선배들이다. 조합원 모두가 후끈했다. 위로부터의 지침 없이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투쟁이다. 감명깊었다.”



## 쿠팡에서 마주친 그대 모습

인근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창 사람들 자주 마주친다는 이야기.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사람 다수. 생활 유지를 위해 투잡은 필수.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어쩔 수 없다. 붕어빵 사들고 귀가하는 화목한 가정 꾸리는 게 꿈이었는데, 50원이라니 붕어빵 사기도 힘들 것 같다는 조합원의 사자후.

회사가 어려울 순 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책임전가해선 안된다. 그렇게 어렵다던 사측이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150억원 규모를 모두 현금으로만 취득했다고.

## 설 연휴 지난 뒤 본격 예열

지회의 입장은 명확하다. '한층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키는 지회가 쥐고 있다는 것'. 사측은 어려움 뒤로 숨어 조합원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사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출근 선전전은 꼭 진행된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나면 조합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예열한다.